

물리치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ACPT 총회를 끝나치고

회장 정진우



아시아 물리치료사 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를 무난히 치를수 있게 된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대회가 국제대회인 만큼 어려움도 많았으나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갔던 것은 오로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임원 여러분의 뜨거운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에서 27명의 외국인이 각국 대표로 참석하여 주었으며 800명이 넘는 국내회원이 참석하여 명실공히 국제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개회식의 모든 의전과 집행절차도 거의 빈틈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사부장관 대한의학회장 장애인 재활협회장의 축하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를 축하하여 주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셨던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강을 맡아주셨던 이일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녁 만찬에서 가곡을 불러준 박명숙 회원과 구노의 아베마리아를 현대무용으로 발표해 준 김진희 회원의 재주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분들의 용기와 재주에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A 코스를 신청했으면서도 숙박을 외국인들을 위하여 객실을 양보해 주셨던 회원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함께 전하며 서로 너무 양보한 탓으로 빈 객실이 생겼던 일도 하나의 미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대 식구들을 회동하여 서울로 올라온 각 지방의 직무장님께 감사하며 지방회원 여러분의 열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혹 불편한 점이라도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례날 학술대회도 훌륭한 논제들로서 진지한 태도와 성의있는 준비와 열성적인 발표에 어느 국제학술대회에 못지 않은 근사한 학술대회였습니다. 학술대회가 끝난 후에 일본회원인 모리나가씨는 말하기를 "대부분 학술대회때는 지루하여 잘 듣지않고 관광이나 쇼핑을 하게되었는데 이번에는 한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디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너무 넓어 뒤에 자리한 분들에게는 불편함도 있었고 지방회원들은 오후시간엔 들어가야 하는 입장때문에 술렁이긴 했으나 진행이 아주 잘 되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서울야경, 민속촌, 여주이천 도요지 관광에서도 회원들간의 친목은 도타운것이였으며 뜻 깊은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환송파티의 각국대표 송별사에서 모든 회원들의 친절함에 감사하며 훌륭한 ACPT 총회 및 학술대회를 치루게 된 것을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해들었을 때, 그간의 피로와 정사적 압박감도 붉은 녹듯하며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ACPT 총회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얻은 것이 많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마스크에(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등) 홍보가 되었으며 국제대회를 유치할 만한 저력도 보여줄 수 있었으며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인식도 역시 좋아졌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아시아 각국의 물리치료사들 간의 만남과 같은 직업인으로서의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겠습디다.

대내적으로는 이러한 큰 행사를 통하여 서로의 단합과 협심이 이루어졌으며 자신에 대한 능력의 향상과 대회를 치루는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텔측에서는 처음으로 800명이 넘는 행사를 치루었을 뿐 아니라 회원 여러분들이 질서와 양식이 너무 훌륭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컵하나 재털이 하나 분실되지 않았다 함)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면 된다는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며 1987년도에 일본에서 개최될 ACPT 총회 및 학술대회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회원여러분 정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